

Y2K 종합대책

컴퓨터 2000년문제 종합대책(요약)

〈국무총리실 '98. 3. 31. 국무회의 보고자료〉

대책수립 배경

- 「컴퓨터 2000년 문제」는 컴퓨터의 보급초기에 메모리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년도표기를 4자리중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H/W와 S/W를 설계함으로써
 - 컴퓨터가 19××년대와 20××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임.

보활동을 전개한 결과

- 문제에 대한 「사회적 인식은 확산」되고 있으나, 대기업, 금융기관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「성과가 미흡」한 실정임
- 이에 따라 앞으로 2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「컴퓨터 2000년 문제」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,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「범정부 차원의 대책」을 수립하게 되었음

대응실태 및 문제점

대응실태

□ 공공부문

- 정부 각 부처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실태조사에 주력하여
 - 13개 부처가 '98년 예산에 57.7억원을 반영

-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·도별로 대책반을 구성
 - 운영중에 있으나, 대부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해결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정부투자기관도 원전, 송·배전, 통신 등 부문별로 문제해결을 추진중에 있으나
 - 항만, 운송, 의료분야 등 일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
□ 민간부문

-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, '99년 상반기까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
 - 증권, 보험, 종금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응이 늦어지고 있음
-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은 재원부족과 인식저조로 대응이 늦어지고 있음
 - 특히 공장의 자동화설비, 각종 제어시스템 등에서도 2000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함

추진상의 문제점

-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2000년 이전에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곤란
 -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괄하여 대응하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, 지방자치단체,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이 발생하고 문제해결의 효율성이 저하
 - 각급 기관에서는 전산적 실무자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음
- 정보시스템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진척관리가 미흡
 - 기관별로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아 문제발생유형의 파악과 대책수립이 어려

운 실정임

- *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지난해 실태조사 이후 국방부 등에서 추가예산의 필요성 제기

- 문제발생유형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절대 부족
 -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조사결과 정보부족 (57.7%)이 대응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
 - 그동안 한국전산원 등에서 문제해결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배포기관이 한정되고, 내용이 불충분하여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음
- 중소기업의 대처지연 및 전문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미흡
 -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'99년말까지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2000년 문제해결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에 대비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대책이 미비함

종합추진대책

□ 추진체계를 개선·보완

- 국무조정실에 민·관이 참여하는 「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」를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
-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
 - 정보통신부 : 국가사회 전반의 추진실태 관리 및 지원
 - 행정자치부 :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태 관리 및 지원, 중앙행정기관의 문제해결지원
 - 중소기업청 : 중소기업의 추진실태 관리 및 지원
- * 중소기업청에 정부·기업 등이 참여하는 「중소기업지원대책협의회」를 구성

- 각급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문제해결을 추진
- 중점관리대책부문을 선정하여 지속 점검
- 컴퓨터 2000년문제 발생시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문제해결능력이 취약한 부문을 「중점 관리 대상부문」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
 - 지방행정, 금융, 원전, 전력(발전 및 송·배전) 및 에너지(가스·송유), 통신, 운송, 항만, 의료, 중소기업, 산업자동화설비 등 10개 부문을 선정
-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실태 및 진척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
 - '98. 4월중 1차로 민·관 합동으로 5~6개 기관을 선정하여 점검
- 기술 및 정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홍보를 활성화
- 한국전산원에 「기술자문단」을 구성('98. 4월)
 -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진단, 해결방안 등을 자문하고 기술지도
- 행정자치부, 한국전산원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「정보안내센터」를 설치하여 문제진단방법, 해결방안, 전문업체 소개 등 2000년문제 관련정보 안내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「전문기술인력 Pool」 운영 ('98. 4월)
-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컴퓨터 2000년문제에 관한 「캠페인 전개」
-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
- '98. 4월중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(중점관리대상부문 포함)은 기관장 책임하에 정보시스템 현황 및 추진상황 조사실시
-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은 업종별 협회·조합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추진실태 조사
- 각 기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'98. 4월말까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기수립된 대책을 보완
 - 중소기업청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금 및 기술지원방안, 정보제공, 애로타개책 등 「중소기업 지원대책」을 별도 수립·시행

Y2K 대응계획

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〉

Y2K 전문인력 POOL 운영계획

개 요

Y2K 문제 해결에 가장 실효성있는 COBOL 프로그래머 등 현업에서 기 퇴출한 전문인력을 재교육시키며 현장에 배치 활용하는 계획

목 적

- Y2K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양성 공급
- IMF 여파로 실직한 전문인력을 위한 취업 기회 창출

현 황

- 200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COBOL 프로그램 등 전문인력 수요급증

- 특히 '98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
- MACRO-LSI, 크라이슬러등의 미·일 기업이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를 확보하고 있음
- 국내 SI /SM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정도는 자사 전산시스템 문제해결에 충당되는 정도로 외부 프로젝트에 투입할 여력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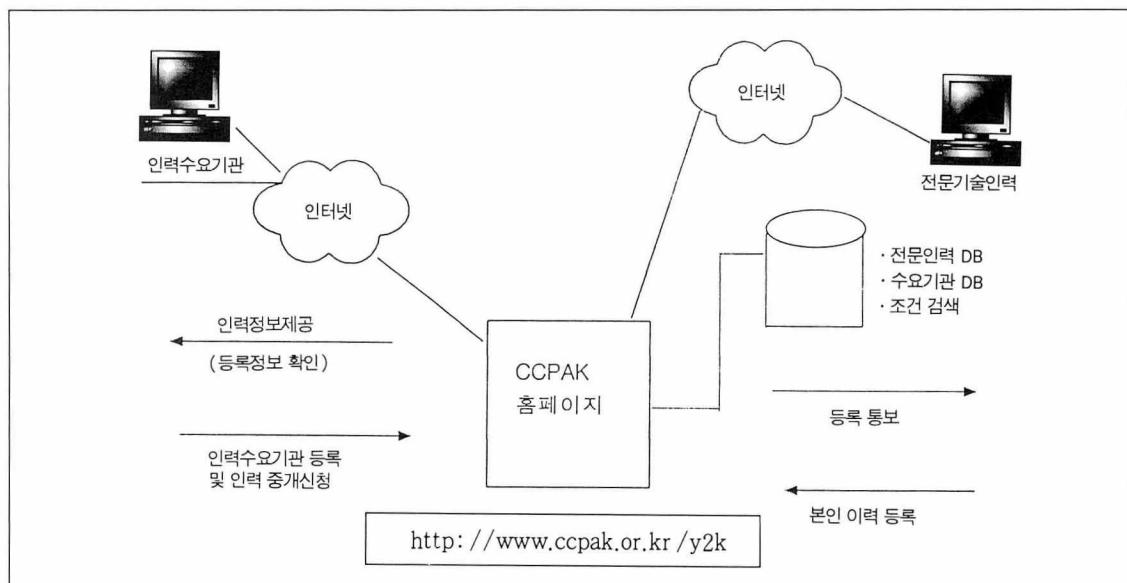
〈국내 정보시스템 분야 Y2K 대응 인력 수급 전망〉

총 소요인력	공급가능 인력	부족인력	비 고
약 740,000명	약 569,000명	171,000명	

※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사통계실 추정

POOL 구축

등록시스템



POOL 등록

- 대상 인력 : COBOL, ASSEMBLY, PL/1, FORTRAN등
- 등록 방법 :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
- 등록 내용 : 경력, 개발 경험, 사용기능 언어, 주사용 기종 등

교육 훈련 계획

교육훈련 목표 수준

- 2000년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, 시스템진단 및 문제대상 판단, 해결방법론 등 문제해결 흐름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적용 가능토록 교육 추진

주된 교육 훈련 내용

부문	교육 내용
2000년 문제 기본 접근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0년 문제 접근 방법 - 시스템 진단 및 문제에 대한 판단 - 기본적인 해결 방안, 프로그래 미의 역할
2000년 문제 해결 기본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그램 도큐먼트 작성 및 관 리 방안 - 확장성, 유연성을 고려한 신 규 프로그래밍 기법 등
2000년 문제 해결 실무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례분석 및 Case Study 등

교육 훈련 방식 : 50~100명 /기당 자체 또는 위탁

협력 기관

- 대책위 참여회사, 주요 H/W, S/W 공급사, 정보처리전문가협회, 전문 교육훈련 기관 및 대학 부설 훈련원

일정 계획

- 등록 시행 : '98. 3. 23일부터 ('98. 4. 3일 현재
250명 등록)

-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: '98. 4. 30일까지
 - 제1기 교육훈련 : '98. 5월부터

공급 계획

대상

- 국내 공공기관, 중소기업체 우선 공급
 - SI업체 등 수요기관
 - 해외 Y2K 프로젝트 수주업체

절 차

- 전문인력 정보는 비공개
 - 수요기관이 협회에 신청
 - 적정 인력 추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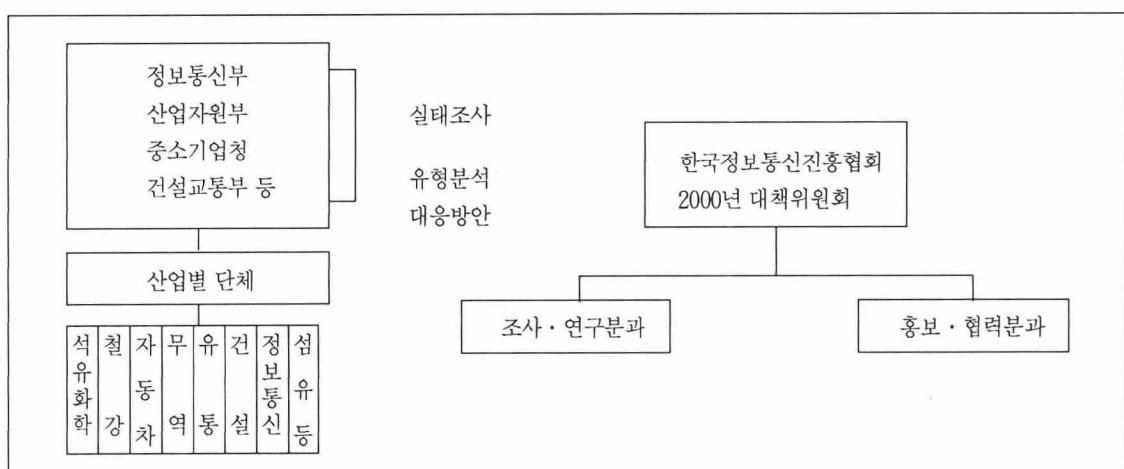
산업별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

목 적

- 산업별 Y2K 대응 효율화를 위한 현황파악, 문제유형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

추진 체계

- 정보통신부, 산업자원부, 중소기업청,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산업별 단체와 공동 추진



현황 조사

- 산자부, 중기청, 건교부등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산업별 단체와 공동 실태조사
 - 산자부의 4.20일 관련단체 회의시 공동조사 협의 및 추진
- 조사 내용 : 정보시스템, 산업설비에 대한 Y2K 문제 대상 및 대응 현황
 - 조사양식은 기존 정보시스템 조사양식에 산업설비에 대한 조사 내용 추가
- 조사 기간 : '98. 4. 22(수) ~ 5. 2(토)

대응방안 강구

-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로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
 - 현황조사 통계처리(5월)
 - 문제 유형 파악(5월)
 - 대응방안 강구(6월~7월)

정보안내센터 운영

목 적

- 컴퓨터 2000년 문제 인식확산과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제반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연계지원

안내센터 설치

- 협회내에 2000년 문제 정보안내 데스크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
- 인터넷 웹을 통해 2000년 문제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
- 전문기관 및 전문기업의 Y2K문제 관련 홈페이지 링크

안내센터의 기능

- Y2K문제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
 - Y2K문제 해결을 위한 TOOL 및 전문기관, 대응 전문인력 정보
 - 정부의 Y2K문제 종합대책과 추진현황
 - Y2K문제 관련 조사통계 자료
 - Y2K문제로 인한 파급 영향과 문제점 등
 - 코드체계 표준화 등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 지침 정보
- Y2K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한 상담 알선
 - 전문기관 및 전문가 상담 알선

운영 방안

- 인터넷, PC통신등을 통한 안내센터 홍보 추진
- 관련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 협력체제 구축
- 안내 데스크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

추진 일정

- CCPAK 홈페이지 개설 : '98. 3. 23
- 전담업체, 관련기관과 링크 완료 : '98. 4. 10
- 안내데스크 개설 : '98. 4. 20

Y2K 캠페인 전개

목적 및 필요성

- 민간 업계 등의 Y2K 문제 해결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
- 언론의 과장, 오류 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안 해소
-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 전개로 Y2K인식확산 및 대응 촉진

추진체계

- 주 관 : 정보통신부
- 주 최 :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, 중앙일보

구 분	내 용	비 고
정보통신부	사업 주관	
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	Y2K관련 추진활동에 대한 정 보제공	'98.4.7 부터 중앙일보 사고개재
중앙일보	2000년 문제 관련 추진 현황 및 대응 등에 대한 보도	

주요 내용

-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
- 정부의 관련 정책
- 공공부문, 민간부문의 대응 현황
- Y2K 해결 진전 내용 및 사례
- 기타 Y2K 관련 정보

Y2K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

필요성

- Y2K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
- Y2K 문제 해결 및 대응 촉진 지원

추진 방법

- Y2K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서울 및 지방등에
서 Y2K 대응지원에 대한 세미나를 관련 부처
및 단체, 언론기관과 공동개최

세미나 주요 내용

내 용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Y2K 문제의 본질 및 중요성 ○ 영향조사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스템자원 분석, 2000년 문제 영향 진단, 이행전략 등 ○ 문제해결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드변환 단계, 테스트 단계 ○ 대응사례 발표 등 	

세미나 일정 계획

구 분	일 자	지 역	장 소	비 고
1차	'98. 4. 24	광주 · 전남북	금호생명 30층	14:00부터
2차	'98. 5. 20	대구 · 경북	대구은행 지하강당	
3차	'98. 5. 22	울산 · 경남	울산상공회의소 7층	
4차	'98. 5. 26	대전 · 충청	평송청소년 수련원 소강당	
5차	'98. 5. 28	춘천 · 강원	강원도 여성회관	
6차	'98. 6. 1	수도권	서울 KOEX 4층 국제회의실	
7차	'98. 6. 12	서울	과학기술총연합회관 대회의실	